

통일평화와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 자료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에 근거하여 발간되었습니다.

1999년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매년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판부터는 그 명칭을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으로 바꾸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발간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비롯한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시각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하는지와 같이 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 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견해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차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는 완성본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더 많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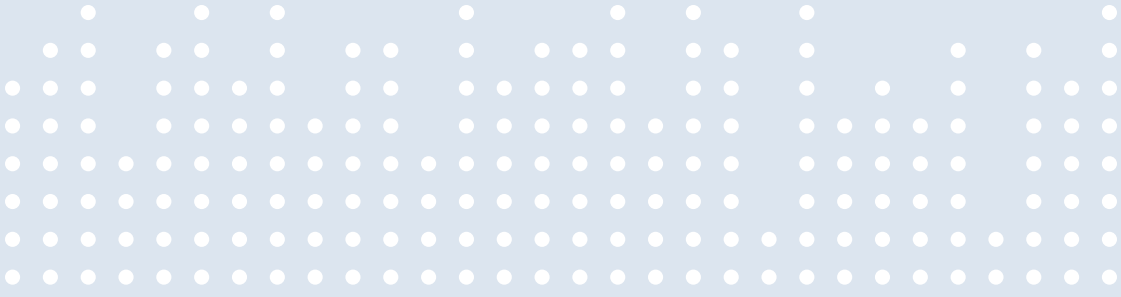
이 자료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있는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정보는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통일문제 이해』·『북한이해』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05
II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09
III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19
IV	평화·통일교육의 방법	33
부록	통일교육 지원법	39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I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분단이 70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며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더 이상 민족적·당위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해야 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을 달성해야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함을 이해시킨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 이는 전쟁의 비극이 다시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자각과 동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 실천의지와 역량을 신장시켜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한반도에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이 영위하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안보의 기초는 군사적 위협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요소들로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지켜나가려는 건전한 안보의식을 갖추는 데 있다. 이러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안보역량의 강화가 평화통일의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이다. 균형 있는 북한관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관점을 말한다.

즉 분단 현실에서 북한은 같은 동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인 이중적 존재라는 사실을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화의식 함양

분단 이후 지속적인 남북 간 체제경쟁과 대립은 상호불신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민족 간 화해와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도 분단 경험 세대와 전후 세대의 인식 격차, 개인별·계층별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상대를 배제하고 갈등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관용의 정신, 평화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의 사회적 통합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주시민의식 고양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민주·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기르도록 해야 한다.